http://dx.doi.org/10.16874/jslckc.2024..74.002

중국 문자의 기원에 관한 생각들과 문해력*

빈동철**

목 차

1. 서론
2. 전통적 접근
3. 두 가지 주요한 현대적 접근
  1) 중국 문자는 갑자기 출현하였다
  2) 중국 문자는 점진적으로 출현하였다
4. 대안적 접근: 문해력(literacy)은 종교적 · 의례적 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
  1) 문해력에 관련된 인지 과정
  2) 사물의 인식에서 문자의 인식으로
5. 요약과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국 문자의 출현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설명부터 현대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접근은 안양 문자 이전의 토기와 기물에 나타나는 부호들을 대상으로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지만, 그 부호들의 기능과 문자로의 전환에 대하여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의 접근은 중국의 문자 출현을 단기간의 발명으로 보는 이론과 점진적으로 축적된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가설 역시 우리가 확보한 고고학적 정보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대안적 접근으로 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5273)

**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연구교수

www.kci.go.kr

자는 안양 문자 이전의 자료를 동원하지 않고, 안양 문자 그 자체만으로 문자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중국 문자, 기원, 문해력, 출현, 이론, 토기 부호, 갑골문, 문화적 진화, 전통적 접근

1. 서론

중국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는 문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자의 정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필요하다. 중국 문자의 기원을 찾아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림이나 부호 같은 표시를 발견하는데, 이것을 문자와 구분하는 것은 문자를 정의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시, 예를 들면, “ ”은 이 장소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시는 정확히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는가? “휴대폰 사용금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절대 휴대폰 사용 안됩니다” 등 전부 의미는 비슷하지만, 정확히 어떤 우리말을 대변한 것인지 규정할 수 없다. 만약에 이 표시를 우리가 문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가령 이 표시를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소리내어서 “휴대폰 사용금지”라고 ‘읽는다’면, 이것은 문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언어, 예를 들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No Cellphones”, “No Mobile Phones”, “Please turn off cellphones”, “No cellphones allowed” 등 입으로 소리내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표시를 언어와 결부시키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데, 그것의 발음, 즉 소리(sound)는 언어마다 다르다. 즉, 이 소리가 나타내는 단어(word)는 의미는 같지만 발음은 다르다. “휴대폰”과 “cellphone”은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만, 발음한 소

www.kci.go.kr

리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문자는 어떠한 대상 혹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상징(symbol)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발음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 문자일 수 있다.

중국 문자의 경우, 이러한 문자의 정의를 토대로 그 기원을 살펴볼 때, 현재까지 가장 빠른 것은 안양에서 발굴된, 기원전 1200년 경의 갑골문이 대표적이다. 갑자기 출현한 안양의 문자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안양 문자 이전에 어떤 다른 문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다른 학자들은 안양의 문자 이전의 형성기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안양의 문자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최초로 출현한 문자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 문자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과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정보와 현대의 인지신경과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가능한, 최선의 설명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2. 전통적 접근

중국 문자의 기원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중국인들 자신의 전통 속에서 한자의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나라 때 許愼(58-148)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說文解字』를 저술하였는데, 그 서문 속에서 한자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 옛날에 포희(庖犧: 짐승을 길들이는 자)씨가 천하의 왕이 되었을 때, 위로 우러러 보아 하늘에서 모양(象)을 관찰하고, 아래로 굽어 보아 땅에서 패턴(法)을 관찰하며, 새・짐승의 문양과 땅의 마땅함을 보았다. 그리고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여, 처음으로 『易』의 八卦를 만들어 하늘의 모양과 땅의 패턴을 남겼다. 신농(神農: 농사의 신)씨에 이르러 매듭을 도구로 다스리고 그 일을 통솔하였다. 많은 일들이 번잡해지면서 꾸밈과 거짓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황제의 사관인 창힐(倉頡)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나뉘어진 패턴으로 서로 구별될 수 있

www.kci.go.kr

음을 알아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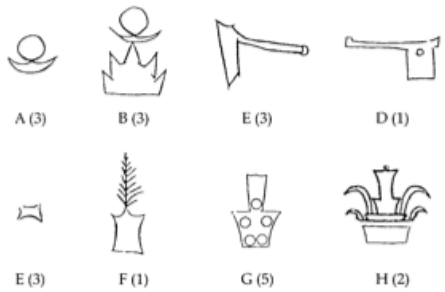
물론 허신이 문자의 탄생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자가 탄생하고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한대에 허신이 제시하는 신화적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신화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특징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문자가 애초에 새와 짐승의 모양이나 그 발자국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문자는 애초에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象形'이라고 하는 그림문자(pictograph)라는 것이다. 그림문자는 언어의 발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자체로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앞서 문자를 정의할 때 설명한 것처럼, 안양의 갑골문은 이미 이런 원시적인 그림문자의 단계를 지나서 언어를 소리로 표현하는 완성된 문자 체계이다. 따라서 허신이 전하고 있는, 창힐이 글자를 창제하였다는, 오래된 전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처럼 문자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신화적 설명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지만, 현대의 일부 학자들에게 문자의 기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다. 바로 문자의 기원을 그림문자로 규정하는 이 전통적 견해는 갑골문 이전에 어떠한 문자의 형성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신석기 시대의 부호와 그림으로 그 기원을 소급하는 견해와 연결된다.

안양의 갑골문 이전에, 간단히 두세 획으로 구성한 표지(sign)나 기하학적으로 그린 그림 등 토기에 나타나는 부호는 중국의 중원과 북방 전역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러한 토기부호(pottery mark)는 신석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략 기원전 2000년 大汶口 지역의 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중국의 학자들은 주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토기부호와 안양 갑골문의 연관성을 확립하려고 한다.[2)]

---

1) 『說文解字』, "古者庖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視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及神農氏, 結繩爲治, 而統其事. 庶業其繁, 飾僞萌生. 黃帝史官倉頡, 見鳥獸蹄迒之跡,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

www.kci.go.kr



山東大汶口文化晚期象形符號[3]

裘錫圭는 이런 "大汶口 문화의 상형부호는 이미 비문자의 도형이 아니라, 원시문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4] 그러나, 이후 그는 이런 초기의 토기부호가 중국 문자의 원시단계(precursor)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전에 그는 大汶口 토기부호와 안양의 갑골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의 가능성을 생각하였지만, 현재는 이런 견해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그런 연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5]

이런 신석기 후반의 토기부호가 중국 문자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는 그 가정에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이런 견해는 안양 이전의 부호와 갑골문의 글자가 형태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 사이에는 발전적

2) 대표적인 사례들은 Qiu Xigui, *Chinese Writing*, trans. Gilbert L. Mattos and Jerry Norman (Berkeley: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and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29-4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최근 파올라 드마테(Paola Demattè)는 안양 이전 시기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토기, 옥기, 청동기 등에서 나타나는 부호와 안양 문자의 형식적 유사성을 강조한다(Paola Demattè, *The Origins of Chinese Wri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227-73). 그러나, 드마테(Demattè)의 주장은 몇 가지 부호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자의 시스템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3) Qiu Xigui, *Chinese Writing*, 34쪽에서 재인용. 그림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나타난 횟수를 표시한다.

4) 裘錫圭, 「漢字形成問題的初步探索」, 『中國語文』, 1978, 162-171쪽.

5) Qiu Xigui, *Chinese Writing*, 38.

www.kci.go.kr

(developmental) 또는 진화적(evolutionist) 관련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신석기 토기부호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양과의 시공간상 거리가 매우 멀다는 사실은 이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이런 부호가 정말로 언어나 말을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개별적 부호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외에, 어떤 시스템과 그 속에서의 내적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 없이, 단지 우연한 형태적 유사성에 의존해서, 시기적으로 훨씬 후대의 문자와 '모양'을 비교하여 안양의 문자에 대한 발전적 모델을 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6)]

현재까지 최초의 문자로 입증된 것은 대략 기원전 1200년 경에 상 나라 후반 武丁 시기 안양에서 사용된 청동기 명문과 갑골문이다. 이 문자는 제사 같은 조상 숭배와 의례 같은, 통치 계급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에 한정되어 있다. 청동기 명문이든 갑골문이든 간에, 문자 체계는 철자법의 원리나 문장의 구조적 특징에서 기본적으로 현대 중국의 문자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대의 중국문자와 형태적·구조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안양의 문자 시스템 이전에 모종의 이전 단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한다. 문자가 처음 출현하여 시대를 내려가면서 발전하거나 진화하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 나라 후기의 문자 이전에 좀 덜 발달된 이전 단계의 문자가 제2천년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裘錫圭는 다음과 같이 상 나라 이전의 문자 단계를 추정한다.

> 상대 후기의 한자는 이미 완벽하게 언어를 기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상대 후기는 한자가 원시 문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완정한 문자 체계를 형성한 시대로부터 이미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7)]

6) William G. Boltz, "Literacy and the Emergence of Writing," in *Writing and Literacy in Early China*, ed. Li Feng and David Prager Branner (Seattle & London: Washington University Press, 2011), 66-7.

www.kci.go.kr

그러나 이런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여러 중국 학자들의 설명이 있지만, 여전히 갑골문 이전 단계에 속하는 문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갑골문 이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앞서 논의한 무엇을 문자라고 하는가 하는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갑골문 이전에 써진 것이 부호이든 글자이든 간에[8],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갑골문과 닮았는지가 아니라, 완전히 성숙된 문자 이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문자로 진화했는가의 문제이다.

3. 두 가지 주요한 현대적 접근

우리가 일단 안양의 갑골문과 청동기 명문이 중국 문자의 처음이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하면, 중국의 문자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적잖히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안양 무정 시기의 문자 활동 몇십년 전에 이 지역에서 문자 활동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혹은 몇 백년 전에 바로 그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그 발전의 과정이 진행되었을까? 혹은 다른 지역에서 문자 활동이 이미 진행되었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일까? 현재 안양 이전의 문자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를 염두에 두면, 중국 문자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가설적 접근들 중에 아래의 주요한 두 시도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9]

---

7) 裘錫圭, 『文字學概要』 修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3) 33; 또한 영어 번역본 Qiu Xigui, *Chinese Writing*, 42-3.

8) 여기서는 그것이 써진 것이든 그린 것이든 간에, 중립적인 의미에서 'graph'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하다.

9) 중국 문자의 출현과 관련하여, 1960년대 까지 겔브(I. J. Gelb) 같은 학자들은 안양 문화

www.kci.go.kr

1) 중국 문자는 갑자기 출현하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논의한 전통적 접근과는 매우 다른 접근이 주로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른 문자의 점진적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고 문자의 형성을 하나의 '발명(invention)'으로 간주하는 접근이다. 우선 이런 견해에 대표적인 윌리암 볼츠(William G. Boltz)의 주장을 보자.[10]

> 문자는 진화론적 발전의 최종적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발명이다. 모든 발명처럼, 그것은 틀림없이 순간적인 출현의 결과였을 것이다. 이 경우에, 그 순간은 누군가 그래프(graph)나 싸인(sign)이 단어나 이름 또는 어떤 다른 의미있는 언어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였다. 글쓰기(writing) 이전에…물리적으로 글쓰기의 도래를 미리 예시하는 표식(marks), 그림,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림문자(pictograph)가 있었을 것이다.…글쓰기의 발명 전후로 이 모든 특징들은 느슨하게 진화론적 양

의 중요한 요소들은 근동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중국 안양에서 갑자기 문자가 출현한 것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의 자극 확산(stimulus diffusion)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I. J. Gelb, *A Study of Wri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217-20). 그러나, 중국 문명 자체 내의 고고학적 증거는 안양의 문화적 특징에 대하여 그 이전의 지역적 선례(예를 들면, 얼리강 문화)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문명의 영향에 의존한 문자 발생의 설명은 더 이상 고려할 선택지가 아니다. 따라서 근동 지역의 자극 확산에 의한 중국 문자의 발생설은 이 글에서 배제한다.

10) 볼츠(Boltz) 외에도, 문자의 '발명'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다. 왕 하이청(Wang Haicheng)은 문자의 발명에 개입한 개인적 천재(individual genius)를 언급한다(Wang Haicheng, *Writing and the Ancient State: Early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301). 마빈 파월(Marvin A. Powell)은 고대 근동의 쐐기문자(cuneiform)는 한 개인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문자의 발명은 어떤 공동체에 의한 것도 아니며, 세대를 거치면서 천천히 축적된 싸인(sign)도 아니다. 즉, 어떤 공동의 진화적 발명에 대한 단 하나의 사례도 없다고 생각한다(Marvin A. Powell, "Three Problems in the History of Cuneiform Writing: Origins, Direction of Script, Literacy," *Visible Language* 15, no. 4 [Fall 1981]: 422).

www.kci.go.kr

> 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의 발명 그 자체는 진화가 아니라 일종의 실현이었고, 틀림없이 신속한 사건이었을 것이다.[11]

볼츠(Boltz)는 초기 문자의 본질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모델을 수용하여, 하나의 그래프(graph)는 행위를 위한 간단한 부호나 표시이지만, 어떤 특정한 언어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 문자의 시작은 이집트의 사례에서 문자의 기원에 관하여 관찰된 것과 같다고 한다.

> 진정한 글쓰기가…창조되고 회화적 예술과 분리되는 전환점은 개별 사물의 예술적 재현이 시각적 연상뿐만 아니라 소리의 연상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단어로 "읽히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실현되었을 때 도달되었다. 이는 음성문자의 발명에 필연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적 관찰이었다. (Iversen 1961: 12)[12]

따라서 볼츠(Boltz)에게는 안양의 문자 이전에 나타난 부호와 표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자가 아니다. 그에 의하면, 누군가 사물을 그린 것과 그 사물의 이름이 불려진 것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였을 바로 '그 순간'에 글쓰기는 발생하였다. 그는 어떤 그래프가 사물을 나타내는 것에서 그 그래프가 단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행한 순간을 "중요한 개념적 돌파(crucial conceptual breakthrough)라고 언급하였다.[13] 다시 말하면, 그림 같은 싸인(pictographic sign)이 '비음성적인(non-phonetic)' 것에서 '음성적인(phonetic)' 것으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싸인은 문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단 그림으로 된 그래프(pictograph)가 '음성적인' 것이 되면, 그 그래프의 모양에 의해

11) William G. Boltz,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New Haven, CT: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4), 38-9.

12) Boltz,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53-4쪽에서 재인용.

13) Boltz,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59; Boltz, "Literacy and the Emergence of Writing," 74-5.

www.kci.go.kr

전달되는 의미의 역할은 감소하면서 그려진 현실성은 종종 빨리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다시 그 그래프의 음성적 성질을 강화한다.[14]

그러나, 문자의 시작(또는 발명)에 대한 볼츠(Boltz)의 설명은 표면적으로 정합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사물을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심지어 문자의 발생 이전부터 인간은 사물에 음성을 결합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사물에 음성을 결합하는 인간의 심리적 활동은 갑작스러운 발견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사물을 그린 것이 '비음성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 그가 '음성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지각되었을 때, 그 사물에 대하여 음성적 재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각적 단어 만큼이나 시각적 사물 역시 '음성적(phonetic)'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음성적인' 시각적 사물과 '음성적인' 시각적 단어의 절대적 구분은 포기해야 한다.[15] 그가 제시한, 순간적으로 발생한 "개념적 돌파(conceptual breakthrough)"는 실제적 경험과는 분리된 가상의 개념에 가까워 보인다. 만약 그런 개념적 돌파가 이루어졌다면, 안양 무정 시기의 문자 시스템 같은, 갑작스러운 발명(?)은 글쓰기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도 어떤 발명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미래를 예견하여 문자 시스템을 발명한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발명자는 族徽 같은 부족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징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성 언어에 대응하는, 글로 쓰는 언어의 유용성을 상상해 글쓰기를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싸인 목록 전체를 고안해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략 3000개에 달하는 그래프를 모아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설득해야 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발명의 시나리오이다.[16]

---

14) Boltz, "Literacy and the Emergence of Writing," 75.

15) Adam Smith, "Writing at Anyang: The Role of the Divination Record in the Emergence of Chinese Literacy"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8), 118-9.

www.kci.go.kr

엄격하게 언어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이 문자를 음성적 재현(phonetic representation)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글쓰기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오히려 주요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쓰기의 기능과 맥락의 역할을 소홀히 한 바, 문자 시스템이 발명되는 드문 경우에 대하여 어떤 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경우는 문자의 발명이 언어학적 원리가 아니라, 맥락과 기능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한다.[17]

2) 중국 문자는 점진적으로 출현하였다

문자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출현하였다는 가설과는 반대로, 오랜 진화과정의 축적을 반영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앞서 언급한 전통적 접근의 시각과 유사한 논점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지만, 근동 지역의 사례로부터 착안한 정교한 이론적 가설을 제기한다. 갑작스러운 출현이 아닌, 중국 문자의 오랜 진화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로버트 베글리(Robert W. Bagley)는 우선 전통적 접근의 가설을 검토한다.

사실 전통적 접근은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

16) Robert W.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in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ed. Stephen Hous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30-3.

17) 존 베인(John Baines)은 이집트의 초기 문자와 관련하여, 그 문자 발명의 목적을 언어적 '소통(communication)'보다는 행정적·경제적 동기나 '전시(display)'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동반한, 제한된 '맥락(context)'에 강조점을 둔다(John Baines, "The Earliest Egyptian Writing," in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ed. Stephen Hous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51-75). 제롤드 쿠퍼(Jerrold S. Cooper)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글쓰기의 발명을 초래한 복잡성의 특별한 측면은 행정적이며, 수입, 지출 그리고 대규모 조직 내의 이송(transfer)을 기록하는 데 있다고 보고, 글쓰기의 발명에 대한 공통된 '맥락'을 사회적·경제적 요소에서 찾는다(같은 책, Jerrold S. Cooper, "Babylonian Beginnings: The Origin of the Cuneiform Writing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71-80).

www.kci.go.kr

장이다.[18] 이것은 안양 문자 이전의 단계를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지만, 안양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族徽는 안양 이전의 문자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양 이전의 문자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다고 제시한다. 말하자면, 청동기의 족휘는 화석화된 형태로 고대 문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19] 그러나, 베글리(Bagley)는 이런 청동기의 족휘는 그것의 도상적 특징이 갑골문보다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 시기가 빠르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런 청동기에 나타난 족휘는 갑골문에 해당하는 것을 보다 자세하게 그린 그림문자(pictograph)이지, 안양 이전의, 어떤 문자의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0] 그는 안양 문자 이전의 단계에 대한 청동기 족휘의 가능성을 배제한 뒤에, 대표적으로 볼츠(Boltz)가 제기한, 단기간에 문자의 출현 가능성 역시 배제한다.[21]

베글리(Bagley)는 싸인(sign)과 언어를 결합하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중국에서 문자가 점진적으로 발전한 단계들에 동기를 부여했을 기능들

18) 최근에 黃亞平은 한자의 기원과 관련하여, 여전히 선사 시대의 오랜 예술적 탐구를 통해 축적된 그림과 부호 속에서 그 기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접근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는 한자의 기원과 형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부호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한 '漸變說'과 문자 체계의 형성은 사회적 요구에 기인한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의 급변 과정이라는 '突變說'을 융합("融通")하려고 한다. 그의 논의는 중국 문자의 '원천'의 측면에서 '漸變說'로 설명하고, 한자 '시스템' 형성의 측면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의한 "돌변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설은 "한자 역사의 연구 속에서 상호 연관된 명제이며, 분별하여 토론해야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린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부호 단계의 '점변설'에다가 사회적 요구를 동반한 '돌변설'을 절충한 것이지, 부호에서 문자로의 급변을 문자 자체 내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黃亞平, 「漢字起源和漢字體系形成問題的探索與思考—兼談漢字起源'漸變說'與'突變說'的融通」,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第九輯(2020), 1-65.

19) 이러한 전통적 접근은 대표적으로 裘錫圭의 주장을 꼽을 수 있다. 그의 가설은 중국 문자의 형성 과정에서 이런 족휘의 대부분이 문자로 전환되었다고 본다(Qiu Xigui, *Chinese Writing*, 40).

20)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227-8.

21)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230-3. 이것과 더불어, 필자는 앞서 이전 절에서 단기간 동안에 문자의 출현을 주장하는 가설에 대하여 충분히 비판하였다.

www.kci.go.kr

에 주목한다. 그 출발점으로 특별히 종교적 의례의 맥락을 고려하는데,[22] 이것과 관련하여 그는 안양에서 발견된 문자는 완전히 성숙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출현한 시기나 장소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양의 문자로는 이전의 어떤 단계에서 문자의 출현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23]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안양의 텍스트는 모두 썩지 않는 재료 위에 써진 것이고, 이것은 단지 의례나 종교적 활동의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만을 반영한다. 반면에, 썩어 없어질 수 있는 매체에다가 적은 글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자 활동보다 더 많은 문자 활동을 예상할 수 있는 일상적 계산이나 기록 보관 등 이른바 무엇을 '관리'하거나 '조직'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자의 증거가, 어떻게 문자가 출현하였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본질적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베글리(Bagley)는 중국 문자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연구 모델을 가져온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중국보다 거의 2000년이나 앞서서 문자 활동을 하였다. 이 지역에서 문자가 발명되고 발전한 것에 대한 연구는 문자의 소리, 즉 음운 정보에 잘 접근해서 분석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발전된 문헌학 전통에서 문자의 기원과 관련한 연구방법들이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데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베글리(Bagley)는 근동 지역의 문자 활동이 종교적 활동과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로 일상적인 '관리'나 '기록'

22) 현재까지 고대 중국에서 글을 쓰고 읽는 능력, 즉 문해력(literacy)은 종교적이거나 의례적인 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은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David N. Keightley, "Public Work in Ancient China: A Study of Foced Labor in the Shang and Western Zhou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69), 353; K. C. Chang, Shang Civi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247-8; Lorthar von Falkenhausen, "*Issues in Western Zhou Studies: A Review Article*," *Early China* 18 (1993): 139-226; Mark Edward Lewis,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14-5.

23)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190, 226.

www.kci.go.kr

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였다.[24]

우리가 베글리(Bagley)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의 경우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가느다란 긴 조각에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기록하는 문자 활동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져서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양에서 이런 매체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안양의 갑골문을 보면 '冊'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 나무나 대나무를 끈으로 엮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象形' 문자이다. 이런 나무나 대나무를 엮어 놓은 매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문자 속에 그 흔적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매체가 남아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상 나라 왕실은 농업을 관리해야만 했고, 이것을 문자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군대의 병사들을 소집하거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기록하는 목록표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청동기 제작이나 다른 중요한 작업의 정교한 공정을 위해서도 수치나 다른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리'나 '조직'을 위한 일들은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기술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베글리(Bagley)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경우처럼, 완전히 성숙된 문자의 출현에 대해서 점진적 발전의 과정을 가정한다.[25]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양의 문자는 완전히 성숙한 문자이다. 그래서 이미 수세기 동안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점을 치는 기록인 갑골문 영역 말고도 다른 텍스트 장르가 다양하게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아니면 근동 지역의 사례를 모델로 해서 과연 베글리(Bagley) 같은 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상 나라 후기에 여러 가지 텍스트 장르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상 나라 안양에서 '관리'나 '조직'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문자를

24)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234-6.
25)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233.

www.kci.go.kr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중국에서 대략 기원전 1300년부터 '관리'나 '조직'의 목적을 위하여 글쓰기가 일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주장은[26] 그 이후로 거의 1000년 동안이나 토기라는 매체에서 글쓰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잃어버린다.

그가 문자의 진화론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동 지역의 사례를 모델로 행정이나 관리를 위한 기록으로 문자 발명의 동기를 가정하는 것은 또다른 비판을 야기한다. 그가 중국 문자 시스템의 진화과정에서 종교적 의례의 맥락—점을 친 기록을 보존한다—을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점치는 사람들은 조상의 목록과 의례 스케쥴이 필요했지만, 이것들은 문법적인 문장을 적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내용이 긴 갑골문은 많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아서, 수천개 그래프의 어휘목록을 발전시키는 데 확실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점복은 일반적으로 글쓰기 없이 기능하고, 안양의 왕 아홉명이 일부 뼈에 글을 새긴 것은 견갑골점(scapulimancy)의 더넓은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이라는 조건에서, 글쓰기의 발명을 점복에서 발생한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27]

여기서 "점복은 일반적으로 글쓰기 없이 기능한다"는 베글리(Bagley)의 주장은 그 점을 실행하는 맥락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물론 신석기 초기나 청동기 시대에 유사한 점복은 싸인(sign)이나 문자의 흔적이 정말로 없다.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점복도 안양에서 만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견갑골점의 역사에서 점복을 기록한 것이 매우 예외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상 나라를 이어서 주 나라와 전국시대에도 안양에서 보존된 기록과 그 형식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점복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존재한다.[28] 따라서

---

26) 현재까지 베글리(Bagley)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견지한다. Postgate, Nicholas, Tao Wang, and Toby Wilkinson, "The Evidence for Early Writing: Utilitarian or Ceremonial?," *Antiquity* 69, no. 264 (1995): 459-80; Wang Haicheng, *Writing and the Ancient State: Early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

27)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235.

28) 예를 들면,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 초 나라 고위 관료였던 邵佗(d. 316 BCE)의 무덤에

www.kci.go.kr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점복을 기록하는 것이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상 나라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점복의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을 사용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29]

만약에 상 나라 초기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좋은 날을 잡기 위해서 점을 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아마도 이 점치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날짜를 잡고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갑골문 중에는 딱 맞는 날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날짜와 함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있다. 왕이 죽어 제사를 받는 조상이 되고, 이 과정이 시대를 내려가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죽은 왕의 부인도 제사를 받는 사람들의 목록에 편입되었다. 안양에서 상 나라 통치 기간 후기에 여섯 세대에 걸쳐서 31명의 왕과 그 부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목록을 담고 있는 갑골문이 있다. 이렇게 제사를 받는 조상들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딱 정확한 날짜에 제사지내는 일을 하기 위한 기록 보관(record-keeping)이 중국 문자 체계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아마도 상 나라 시대에 점을 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물을 표시하는 부호나 싸인(sign)을 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부호들을 축적해 나갔을 것이다. 점을 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문자

서 나온 包山墓地竹簡의 卜筮는 酓吉라는 사람이 邵佗가 (죽은 영혼으로부터) 해를 입을 것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古)을 거행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 나라의 수도 周原의 건물 기단에서 발견된 주 나라 갑골문뿐만 아니라, 전국시대의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은 점복을 기록한 것이 상 나라의 매우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Constance A. Cook, *Death in Ancient China: The Tale of One Man's Journey* (Leiden: Brill, 2006), 79-118, 154-157; Li Feng, *Early China: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18-9.

29) Adam Smith, "Writing at Anyang: The Role of the Divination Record in the Emergence of Chinese Literacy"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8), 145-7.

www.kci.go.kr

출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갑골문 속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관리'나 '조직'을 위한 것보다도, 점 친 기록 자체 내에서 의례 과정이 잘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갑골문자 중에서 " "(『甲骨文字詁林』 #3348)은 거북이 배딱지에 뜨거운 것을 대면, 이런 모양의 균열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점친다는 의미를 가진 '卜' 자이다. " "와 ""는 소 어깨뼈를 나타내는 '骨'이라는 글자이다. 이것과 더불어, 소 어깨뼈에 '卜' 자처럼 균열이 난 모양을 가진 글자가 있는데, 바로 " "(『甲骨文字詁林』 #2240)은 '소 어깨뼈에 생긴 금을 해석한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이다. 현재는 '爼'로 읽고 있다.[30] 이런 문자들은 의례 과정 자체가 문자 출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대안적 접근: 문해력(literacy)은 종교적·의례적 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문해력(literacy)과 관련하여 글쓰기의 출현을 고려해 볼 때, 비음성적 표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공동체라도 문해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자 시스템과 관련된 문해력의 기본적인 인지적·심리적 측면은 문자 이전의 비음성적 표기 시스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해력은 인간 사회 구성원의 어떤 표기(mark)—그것이 그림같은 상징이든지 그래프이든지 간에—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될 때, 이것은 볼츠(Boltz)가 규정한 진정한 글쓰기(true writing)의 사용에 선행하고, 사실상 음성을 표시하는 문자 시스템(glottographic writing)의 출현에 인지적인 필요조건인 것 같다.[31]

30) 于省吾 編,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1996.
31) Boltz, "Literacy and the Emergence of Writing," 72-3.

www.kci.go.kr

1) 문해력에 관련된 인지 과정

최근 인지신경과학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문해력의 기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우리의 대뇌에 문자를 위한 특별한 대뇌 피질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사람의 뇌에 일차 청각 영역이나 운동 피질 영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언어이든 상관없이 읽기를 위해서 뇌에 보편적인 매커니즘이 존재한다고 한다.

시각적으로 입력된 일련의 문자에 대한 정보를 언어 영역으로 전송하는 특별한 '읽기 영역'이 뇌에 있는데, 이 영역을 '시각 단어 형태 영역(Visual Word Form Area)' 또는 뇌의 '문자 상자(letterbox)'라고 한다. 1892년 프랑스의 신경심리학자 조셉 쥘 데저린(Joseph Jules Dejérine)은 뇌졸중으로 인한 좌반구 시각 체계의 일부 손상이 읽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영역이 바로 왼쪽 대뇌 반구(the left cerebral hemisphere)의 한 곳에 시각적으로 단어를 인지하는 영역이다(그림 1). 최근의 뇌 영상은 그 손상 영역이 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 영역은 모든 인간의 뇌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문자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의식적 자각이 가능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문자의 크기, 모양, 위치 등 외형상 차이에 관계없이 일련의 문자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두 개의 중요한 뇌 영역인 측두엽과 전두엽에 보낸다. 측두엽은 소리 패턴을 처리하고, 전두엽은 의미 패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이 '문자 상자'의 영역은 일련의 문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발음과 의미를 처리하는 상위 영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32]

'시각 단어 형태 영역(VWFA)'은 무엇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왼쪽 반구의 영역에 속하는데, 원래 물체의 인식을 담당하던 영역이 반

32) Stanislas Dehaene, *Reading in the Brain: The New Science of How We Read* (New York: Penguin, 2009), 24-8.

www.kci.go.kr

복적인 노출과 학습을 통하여 읽기에 점차 특화된다. 곧 '시각 단어 형태 영역(VWFA)'은 학습과 경험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제시된 글자와 단어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다.[33] 이러한 인간 뇌의 '시각 단어 형태 영역(VWFA)', 즉 '문자 상자(letterbox)'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바로 한 집단 혹은 공동체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문해력이 출현하는가 하는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해력을 인간이 어떤 표기(mark)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넓게 규정할 때, 이 능력은 우선 문자 이전의, 그림 같은 부호에서 출현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문자는 아니지만 의미를 나타내는, 마치 그림 같은(pictorial) 부호는 실제 사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름 부를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인지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토기에 여러 부호로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갑골에 어떻게 새기는지 배우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새기는 활동을 통하여, 문자 이전 단계에 있는 부호들의 사용이 강화되면, 그런 부호들의 다양한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일반적 인식 능력은 그 부호들을 선택적으로 마음 속에 축적하게 된다. 이렇게 애초에 '사물 같았던' 부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 부호를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마음 속에 가지는 인지적 습관은, 이러한 부호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부호들의 목록과 더 복잡한 기록의 관습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부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하면, 이 부호에 대한 인식은 그 부호의 모양과 닮은 사물을 인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호 자체의 시각적 특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34]

---

33) Cohen, Laurent and Stanislas Dehaene, "Specialization within the Ventral Stream: The Case for the Visual Word Form Area," *NeuroImage* 22 (2004): 466-76.

34) Adam Smith,"Writing at Anyang: The Role of the Divination Record in the Emergence of Chinese Literacy" 117-37.

www.kci.go.kr

2) 사물의 인식에서 문자의 인식으로

어떤 사물을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그 사물을 글로 써진 이름(시각 단어)을 보고 읽는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사물을 닮은, 그림 같은 '부호'가 점진적으로 '문자'로 이행하는 단계로 나아갔는지 그 해명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새기거나 그려서 거의 자동적인 습관처럼 부호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그 부호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표준화된다. 부호의 모양이 표준화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시각적 과정의 작업을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은 그 시각적 모양에서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개별적 사물은 여러 다양한 조건과 방향에서 인식될 수 있다. 심지어 그 사물의 일부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다. 마치 '사물 같은' 그림 부호(pictorial sign)는 그것이 나타내는 시각적 사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이 부호는 대상의 두드러진 시각적 특징을 포착하여 표준화된 모양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부호를 새기거나 그리면, 그 부호와 닮은(그래서 대변하는) 사물의 특징이 아니라, 그 부호 자체의 시각적 특징을 통해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부호를 사용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의 부호를 인식할 때, 그 부호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과 시각적으로 매칭시켜서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시각적으로 경험했던 여러 부호들의 목록을 토대로, 그 부호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물을 닮은, 그림 부호(pictorial sign)의 '상형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서 문자로의 이행이 중국 문자의 초기 단계에서 보여지고 있다.[35]

우리는 실제 갑골문 자체에서 이러한 이행을 목격할 수 있다. 안양의 문자

35) Adam Smith, "Are Writing Systems Intelligently Designed?," in *Agency in Ancient Writing*, ed. Joshua Englehardt (Boulder: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2013), 71-93.

www.kci.go.kr

이전에 나타난 여러 토기 부호에서 그 모양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입증되지 않는, 갑골문 이전 단계의 원시 문자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안양의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도 그 이전의 단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갑골문의 발전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문자의 출현에 대한, 보다 신빙성 있는 진화론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갑골문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卜], 爭貞: 王曰 , 田爾其執? (『合集』 6528)

문제가 되는 글자는 ""이다. 이전에는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 글자가 구부러진 부리와 강력한 발톱을 가진 매의 모양이라고 여겨서, '鷹' 자로 예정한다. "田爾"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 속의 "田"은 관직명이다. "執"은 '잡다 또는 포획하다'는 뜻이다. 이제 "王曰鷹, 田爾其執"을 번역해보면, "왕이 '매로 토끼를 잡는 방식'을 명령하여 신하인 田爾가 아마도 잡을 것이다."가 된다. 여기서 "鷹"은 두 개의 명사가 아니다. 이것은 '鷹를 가지고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곧 이 ""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토끼'와 '매(鷹)'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상형성이 가지고 있는, '매를 가지고 토끼를 사냥한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일종의 상징(symbol)을 구현하고 있다.[36]

갑골문의 다른 사례는 볼츠(Boltz)가 정의한대로 문자가 단어의 발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문자 이전 단계의 흔적을 보여준다. 다음의 갑골문을 보자.

癸巳卜, 殼貞: 旬亡回(憂)? 王 (占)曰: "乃茲亦 (有)求(咎), 若稱."
甲午王往逐兕, 小臣, 馬哦(俄), (攻)王子央亦(蹟).
(『合集』 10405, 그림 2)

36) 黃天樹, 「甲骨文中所見的一些原生態文字現象」, 『黃天樹甲骨金文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2014), 4.

www.kci.go.kr

[번역] 계사일에 균열을 내어, 곡(㱿)이 점을 쳤다: 10일 안에 우환이 있을 것이다. 왕이 점괘를 살펴보고 말하였다: "이 10일 안에 재앙이 있으니, 곧 일어날 것이다." 갑오일에 왕이 코뿔소를 쫓았는데, 小臣 甾(치)가 타고 앉은 전차의 굴대가 부러져 기울어져서, 왕의 마차를 쳐서 마차가 뒤집어졌다. 같이 타고 있던 子央 또한 마차에서 꼬꾸라졌다.

여기 '車' 자로 예정할지도 모르는 두 개의 글자 " "와 " "는 각각 그 발음을 대변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 그 상형성에 기반한 의미의 구절을 대변한다. " "는 일반적인 '車' 자와 다르게, 바퀴의 축이 부러진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굴대가 부러지다'는 구절을 문자화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도 사람이 올라타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두 바퀴가 위로 향해서 마차가 뒤집힌 형상을 하고 있다. 문맥상 이 글자는 '사냥하는 마차가 전복되었다'는 구절을 기록한 것이다.[37] 따라서 이 두 글자는 문자 이전의 단계에서 단순한 기호나 부호로 구체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상징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의 두 갑골문 사례는 단어의 순서에 따라 언어를 기록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한 개념만을 그려서 實詞만을 기록하고, 허사虛詞는 기록하지 않아 독자가 스스로 보완해야 하는 형태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董作賓의 5단계 시기분류법으로는 제1기나 제2기에 속하는 상대 갑골문 초기의 복사라는 것이다.[38]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좀 덜 발전된 이전 단계가 기원전 제2천년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두 갑골문은 안양 이전 시기에 사용되었던, 의미를 가진 표식(sign)이 안양의 문자에 남겨놓은 흔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 후기의 복사에서 이런 글자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갑골문 자체의 진화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무언가를 능숙하게 읽는 행동과 '단어 같은' 부호의 출현은, 상 나라의 종교적 의식이나 의례의 맥락 속에서, 전문가 집단에 의하

37) 黃天樹, 「甲骨文中所見的一些原生態文字現象」, 5.
38) 黃天樹, 「甲骨文中所見的一些原生態文字現象」, 6-7.

www.kci.go.kr

여 '사물 같은' 부호를 생산하면서 '읽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반복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반복된 부호 학습의 과정에서 그 부호의 상형성은 점점 쇠퇴하면서 문자로의 이행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문자 이전의 선행 단계가 상 나라 왕실에 의해 진행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사 의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맥락에서 발생하였고, 상 나라 후기의 문자는 그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사 의례의 기록이며, 점을 친 기록은 바로 그 제사 의례를 기록한 주요한 부분이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문자 생성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 제사 의식이나 의례 동안에 사용되는 용기에 표기를 해서 그 의례를 받는 사람을 암시하였던 부호들의 목록이 기원전 제2천년기 중반에 정기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부호들은 나중에 안양의 갑골문 시기 청동기에서 부족을 상징하는 族徽(lineage emblem)나 날짜와 이름이 합쳐진 合文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가축을 상형한 것과 숫자를 포함한 다른 목록들이 제사 기록을 위하여 발달하였다.

이런 제사 기록은 안양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복사에서는 '冊' 자와 함께 가축의 상형을 동반한, '기록의 목록'을 언급하는 글자로 나타난다.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자.

등록된 목록이나 기록된 목록을 의미하는 글자		
『合集』 30398	『合集』 30674	『合集』 30685

두 번째 글자는 왼쪽에 제사를 지내는 재단을 상형한 요소 '示'가 있고, 오른쪽에 '冊'을 결합하여 '등록된 목록' 또는 '기록된 목록'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이 재단을 의미하는 요소는 그 목록의 성격과 내용을 시사한다. 세 번째

www.kci.go.kr

글자는 왼쪽에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子'의 요소와 오른쪽 '冊'을 결합하여 역시 '등록된 목록' 또는 '기록된 목록'을 의미하는 글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사를 받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이런 갑골문의 合文 중에는 제사를 위한 가축 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글자들이 있는데,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새겨져 있다.

一+豕+白 甲+且(祖) 歲 寅 甲　　甲 寅 歲 且(祖)+甲 白+豕+一

殷墟花園莊東地甲骨(『花東』 170, 그림 3)

여기 『花東』 170에서 양 끝쪽에, " ", " " 이 두 개의 글자는 각각 '흰색+돼지+하나(白+豕+一)'를 의미한다. 이런 글자들은 주변에 쓸 공간이 협소하지 않아 굳이 이렇게 글자들을 합쳐서 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合文으로 새겨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合文의 형태는 이 글자가 이전에 다른 데서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갑골문에 이 글자를 새겨 넣은 사람은 연속되는 글자들의 위치가 단어의 순서를 반영하지 않는, 어떤 다른 범주의 기록으로부터 가져온 부호들의 시각적 배열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점을 친 기록에서 제사를 위한 가축 수를 적기 위하여 사용한, 이런 合文은 언어에 바탕을 둔 문장 구성을 따라 일렬로 배열된 텍스트 안에서 기능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사용의 맥락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

www.kci.go.kr

래서 이런 合文은 안양 이전에, 가축을 기록하는 어떤 다른 의례의 맥락에서 사용했던 부호들의 흔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Adam D. Smith)는 갑골문을 어떻게 새기는지 배우는 견습생들이 기록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習刻卜辭'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경우에는 견습생들이 어떻게 갑골문을 '새기는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배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베글리(Bagley)의 주장처럼 문자를 쓰기 위하여 사용한 기타 다른 매체(medium)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개별적인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갑골이 글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매체였다는 것을 시사한다.[39] 점을 친 것을 새기는 工房(divination workshop)에서는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이 먼저 글쓰기 모델을 제시하고 잘 쓰지 못하는 견습생이 이 모델을 따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그림 4). 이렇게 안양의 공방에서는 갑골의 글쓰기를 학습하고, 세대를 거쳐서 전수했을 것이다.[40]

스미스(Smith)의 주장 가운데 보다 주목할 것은 문자의 출현에 필요한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회적 맥락은 전문화되고 통제 가능한 환경(예를 들면, '占卜工房')에서 '글을 쓴다'는 표준화된 행위가 일어나는 조건을 의미한다. 곧, 문자의 출현을 위한 사회적 맥락은 복잡한 일련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가와 견습생 간에 기술적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관계를 토대로 하는 안정된 구조를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문자의 출현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은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경제적 교환의 맥락에서 계산에 필요한 기록을 할 필요에서 일어났다. 반면에, 중국 문명의 경우, 상 나라의 占卜 활동에 의하여 그 복잡한 과정과 반복적 실행으로 말미암아 정점에 이른 종교적 활동은, 글을 쓰는 활동과 관련한 능력(문해력)을 강화시키는 조건이 되었다.[41]

---

39) Adam Smith, "The Evidence for Scribal Training at Anyang," in *Writing & Literacy in Early China*, ed. Li Feng and David Prager Branne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1), 203.

40) Adam Smith, "The Evidence for Scribal Training at Anyang," 204.

www.kci.go.kr

5. 요약과 결론

결론에 앞서, 이제까지 필자가 검토한 중국 문자의 출현에 대한 생각들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접근은 문자의 기원을 안양 문자 이전의 토기와 기물에 나타는 부호에 소급시켰다. 이것은 문자의 기원에 대하여 형식적 유사성을 중요한 근거로 추적하는 가설인데, 주로 중국의 학자들을 포함하여, 최근 파올라 드마테(Paola Demattè) 같은 학자도 여전히 이러한 접근을 견지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안양의 문자보다 빠른 부호들이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이외에, 그 기능과 문자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비판받는다.

엄격한 언어학적 원리를 동원하여 볼츠(Boltz)가 제시한 독특한 가설은 안양 문자의 급속한 출현을 주장하였다. 이 가설은 중국 문자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케이스를 모델로 도대체 문자란 무엇인가 하는 문자의 규정을 우리에게 환기시킨 측면이 있지만, 근동 지역의 글쓰기조차도 단기간의 발명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적된 문화적 진화(cultural evolution)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근동 지역과 문화적 맥락을 달리하지만, 문자 출현의 진화론적 발전과정은 예외가 아니다. 베글리(Bagley)는 진화론적 접근을 수용하지만, 그 역시 근동 지역의 모델을 동원하여 중국 문자 출현의 사회적 동기를 경제적 교환의 맥락에서 계산에 필요한 기록에서 찾음으로써, 그의 가설은 실제 고고학적인 증거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안양 문자 이전의 원시 문자(pre-writing)에 대한 가설들은, 그것이 전통적 접근이든 현대적 접근이든 간에, 현재 우리가 확보한 고고학적 정보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기 대안적 접근으로 제시된 것처럼, 우리는 안양 이전의 자료를 동원하지 않고 안양의 문자 그 자체만으로도 문자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정말로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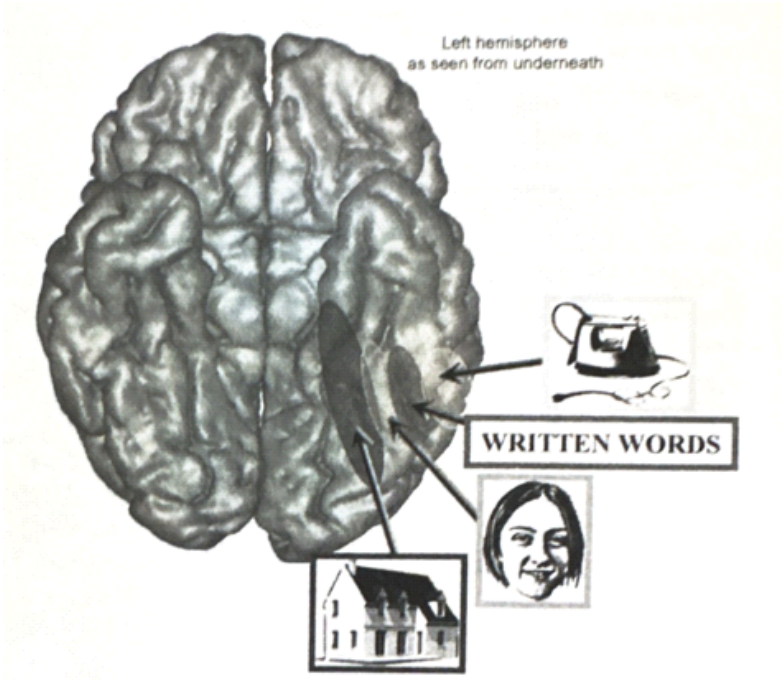
41) Adam Smith, "The Evidence for Scribal Training at Anyang," 173-205.

www.kci.go.kr

미스(Smith)가 주장한 것처럼, 안양의 점복 워크샵(divination workshop)에서는 글쓰기에 대하여 경험과 정보가 더 많고 능숙한 자와, 경험이 적고 미숙한 자가 세대를 거쳐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고 전수한 것 같다. 안양의 문자 속에서 우리는 그 경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 그 자체에서 문자의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고학적 정보가 안양 시기 이전의 문자 발전 과정을 해명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 때까지는 적어도 안양의 문자가 말해주는 것이 중국 문자의 기원에 대한 최소한의, 가능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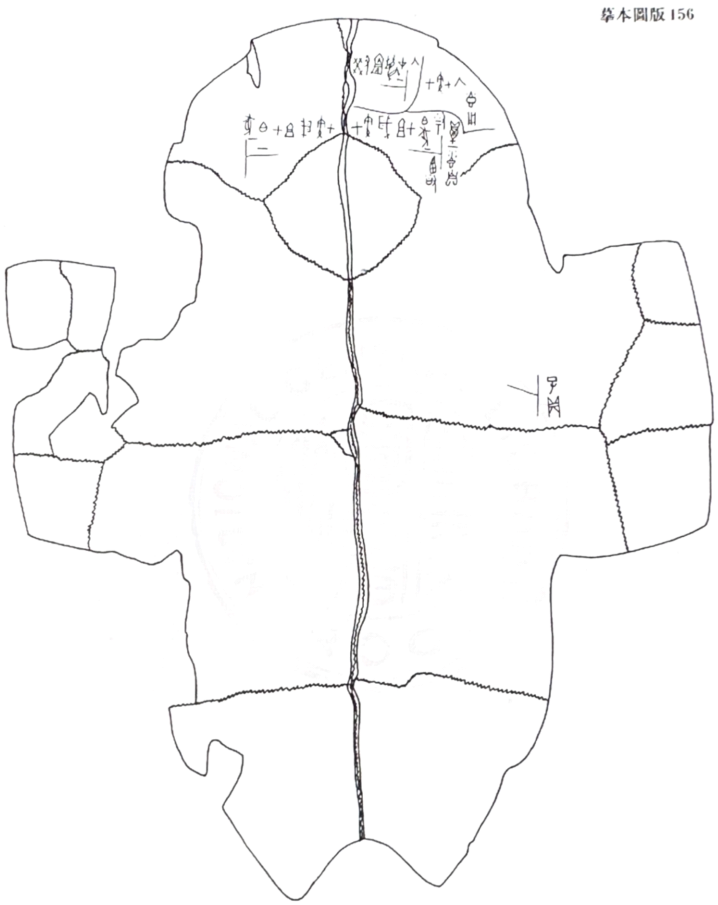
전문화된 '시각 탐지기'의 배치 구조를 뇌의 아래쪽 면에서 보면, 각각의 피질 영역은 특정 범주의 물체를 선호한다. 이 선호 패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는데, 우선 집에서 시작하며, 이어서 얼굴, 단어 그리고 물체 순이다. 읽기가 활성화시키는 영역(VWFA, 즉, 시각 단어 영역)은 얼굴 영역과 물체 영역 사이에 있다. Stanislas Dehaene, *Reading in the Brain: The New Science of How We Read* (New York: Penguin, 2009), 74.

www.kci.go.kr

그림 2.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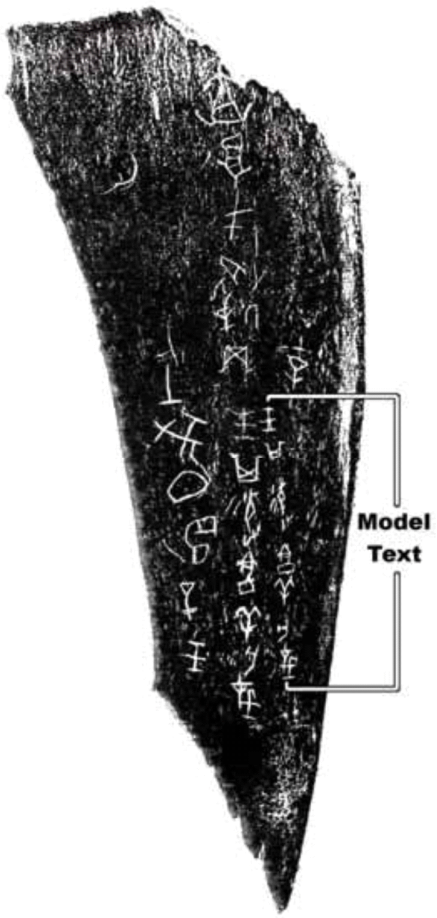
그림 3.



朱歧祥, 『殷墟花園莊東地甲骨校釋』(臺中: 東海大學中文系語言文字研究室, 2006), 321

www.kci.go.kr

그림 4.



Adam Smith, "The Evidence for Scribal Training at Anyang," in *Writing & Literacy in Early China, ed. Li Feng and David Prager Branne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1), 190.

www.kci.go.kr

參考文獻

郭沫若 主編,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編輯,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2.

黃天樹, 「甲骨文中所見的一些原生態文字現象」, 『黃天樹甲骨金文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2014.

黃亞平, 「漢字起源和漢字體系形成問題的探索與思考—兼談漢字起源'漸變說'與'突變說'的融通」,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第九輯(2020).

裘錫圭, 「漢字形成問題的初步探索」, 『中國語文』, 1978.

裘錫圭, 『文字學概要』 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3.

許愼 撰,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于省吾 編,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1996.

Adam Smith, "Writing at Anyang: The Role of the Divination Record in the Emergence of Chinese Literacy,"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8.

Adam Smith, "The Evidence for Scribal Training at Anyang," in *Writing & Literacy in Early China*, ed. Li Feng and David Prager Branne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1.

Adam Smith, "Are Writing Systems Intelligently Designed?," in *Agency in Ancient Writing*, ed. Joshua Englehardt, Boulder: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2013.

Cohen, Laurent and Stanislas Dehaene, "Specialization within the Ventral Stream: The Case for the Visual Word Form Area," *NeuroImage* 22 (2004).

Constance A. Cook, *Death in Ancient China: The Tale of One Man's Journey*, Leiden: Brill, 2006.

David N. Keightley, "Public Work in Ancient China: A Study of Foced Labor in the Shang and Western Zhou,"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69.

www.kci.go.kr

I. J. Gelb, *A Study of Wri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Jerrold S. Cooper, "Babylonian Beginnings: The Origin of the Cuneiform Writing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ed. Stephen Hous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John Baines, "The Earliest Egyptian Writing," in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ed. Stephen Hous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K. C. Chang, *Shang Civi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0.

Li Feng, *Early China: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Lorthar von Falkenhausen, "Issues in Western Zhou Studies: A Review Article," *Early China* 18 (1993).

Mark Edward Lewis,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Marvin A. Powell, "Three Problems in the History of Cuneiform Writing: Origins, Direction of Script, Literacy," *Visible Language* 15, no. 4 (Fall 1981).

Paola Demattè, *The Origins of Chinese Wri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ostgate, Nicholas, Tao Wang, and Toby Wilkinson, "The Evidence for Early Writing: Utilitarian or Ceremonial?," *Antiquity* 69, no. 264 (1995).

Qiu Xigui, *Chinese Writing*, trans. Gilbert L. Mattos and Jerry Norman. Berkeley: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and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Robert W. Bagley,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in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www.kci.go.kr

Process, ed. Stephen Hous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Stanislas Dehaene, *Reading in the Brain: The New Science of How We Read*, New York: Penguin, 2009.

Wang Haicheng, *Writing and the Ancient State: Early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William G. Boltz, "Literacy and the Emergence of Writing," in *Writing and Literacy in Early China*, ed. Li Feng and David Prager Branner, Seattle & London: Washington University Press, 2011.

William G. Boltz,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New Haven, CT: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4.

www.kci.go.kr

Abstract

Ideas on the Origins of Chinese writing and Literacy

Bin, Dongchoel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various approaches to the emergence of Chinese writing, from traditional accounts to modern theories. The traditional approach traces the origin of Chinese characters back to signs on pottery and artifacts that predate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excavated in Anyang, based on morphological similarities. However, this approach fails to clarify the functions of those signs and their transition into characters. Modern theories include, on the one hand, the idea that the emergence of Chinese writing was a short-term invention, and on the other, the view that it resulted from gradual cultural evolution. Both hypotheses contain elements that go beyond what our current archaeological evidence can explain. As an alternative, I propose an evolutionary explanation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aracters, relying solely o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from Anyang, without resorting to earlier archaeological materials.

Key words : Chinese writing, literacy, origin, emergence, theory, pottery signs, oracle bone inscriptions, cultural evolution, traditional approach

투 고 일 : 2024. 10. 10. / 심 사 일 : 2024. 10. 15.~ 2024. 11. 15. / 게재확정일 : 2024. 11. 20.

www.kci.go.kr

www.kci.go.kr